

# ‘통합공항 이전’ 놓고 광주시-전남도 또 갈등 조짐

### 姜시장, 광산구 설명회서 “道, 합의 후 합흥차사” 비판 김산 무안군수·지역정치권에도 서운함 가감없이 드러내 道 “道노력 무안 여론 변화...市 해결 의지 의문” 직격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또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열린 광산구 주민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합의 이후 전남도는 합흥차사다. 아무 소식이 없다”며 비판하자, 전남도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안군민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라고 광주시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산구청 융상원홀에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통합공항 이전 필요성, 군공항특별법 통과 등의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연말까

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끝내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기회라는 것을 전남지사, 무안군수,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전남도에 서운함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강 시장은 “전남도도 이야기해보면 뜻뜻하지 않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애둘러 전남도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시장이 되자마자 합평군수와 대화를 통해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전남지사의 반대가 심했다”며 “(전남에서 내놓은) 대안이 무안으로 통합시켜 옮기자는 것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 합흥차사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무안군에 대해서도 “김산 무안군수는 만나주라고 해도 만나주질



##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

9일 오전 광산구청에서 열린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주민 등 참석자들이 손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않는다”며 “우리 당 군수가 국회의원, 시장, 당 대표 등과 함께 어울려 미래를 고민하고 하자는 데도 안 만난다”고 불편한 마음을 표했다. 정지권에도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시장은 “혼자 못하겠어서 양부남·박군

택 의원에게 한 달 전 당에서 해야 할 것이냐고 사정했다. 18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이 없다”며 “그래서 지난해 ‘광주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공항으로 도약시키고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지역 발전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시의회, 국회는 물론 시민들까지 손을 맞잡아준

만큼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서구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무안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5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전남도가 도민 홍보와 설득 등으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대응이 없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김재정·박성강 기자

## 전남 건설현장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 道 종합감사...공사비 감액 미실시·재해관리 소홀 등 20여건

전남도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감사를 벌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 미실시, 재해관리 업무 소홀 등 20여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 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월 도 본청과 13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 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시공·품질·안전관리, 현장관리 등을 공동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군 단위 한 자체는 2022년 7월부터 31억3천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을 추진하면서 품질 관리자가 현장을 무단 이탈했음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탈 규준을 미시공(22개소) 등으로 5억300만원 감액이 필요함에도 미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현장 품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5천 340만원 또한 감액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 요구했다. /양시원 기자

### ▶1면 '의대 설립방식'서 계속

특히 도의회는 “농촌·도시·산간 지역 뿐만 아니라, 산간과 도시 취약지역 도민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 된 뜻을 모아 동·서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의대 설립 방식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대학을 또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열악한 의료 체계 개선의 핵심이 될 의료 인력 양성의 주

체로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양대학이 앞장서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양대학의 협력과 공모 참여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도는 발표에 앞서 200만 전남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특단의 의료 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모 용역기관인 에이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

기관)은 10일 열린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이후 대학 의견 수렴을 결과를 검토(설립방식선정위원회)해 오는 12일 의대 최종 설립방식을 발표한다. 앞서 용역기관은 지난달 29일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의대 1곳 선정 후 동·서부 2개 대학병원 신설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일 지역 설립 등 2개 안을 제시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설립 방식 기본안’에 대한 적합도를 묻는 도민(2천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불가능”

### “여당 주도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협의해야”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들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사진)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윤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소대부고와 경찰

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

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 다. /김진수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 650-2022

### 광주역앞 대로변코너 최고요지 202㎡ 단층건물

커피숍, 음식점, 편의점, 다용도 급매4억2,700  
=====

### 중흥동 1500세대 대단지아파트입구 대지182㎡

2층상가 보5,000월233 급매5억0800만원  
=====

### 대인동 원각사 인근 상업지 대지980㎡ 8층건물

주차18대 보1억7,000월2,370 급매49억8,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2024-1215호

###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인인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주택법」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발령)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봉선동 161번지 공동주택 신축  
○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기정	중점	시용	주요			
종류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용도			
기정	소1-161	10	국지도로	225	중요1-의 봉선동 161	중요2-우 봉선동23-3	일반도로	-
변경	소1-161	10	국지도로	225(44)	중요1-의 봉선동 161	중요2-우 봉선동23-3	-	*
기정	소1-161	10	국지도로	73	중요1-의 봉선동 159-17	소1-3 봉선동 157-3	일반도로	-
변경	소1-161	10	국지도로	73	중요1-의 봉선동 159-17	소1-3 봉선동 157-3	-	*
기정	소1-2	250	국지도로	103	봉선동 469-9	소1-163 봉선동 157-19	일반도로	-
변경	소1-2	250	국지도로	92	소1-161 봉선동 162-3	소1-163 봉선동 157-19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사유
소1-161	소1-161	-
소1-163	소1-163	공용주택으로의 전환한 전용임용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 변경
소1-2	소1-2	공용주택으로의 전환한 전용임용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 변경
소2-250	소2-250	소1-161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도로명칭이 변경 및 인공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4. 8. 30. ~ 2024. 9. 13. (14일간) ○ 공람장소: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 의견제출 방식: 공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택과  
○ 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영업시간 내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주택과 ☎ 062-017-4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